



日本, 實用新案制度 廢止 檢討 制度 善方案도 檢討.....내년중 施行

日本 特許廳의 實用新案制度 폐지 檢討가 本格化 조짐을 보이고 있다.

日本 特許廳 長官의 私의 諮問機關인 特許行政問題懇談會의 中間報告書가 實用新案制度의 폐지를 포함한 制度改善을 촉구하고 나서 그 조짐을 뒷받침하고 있다.

同 報告書에 따르면 日本의 경우 技術水準의 向上·技術의 라이프사이클의 變化·出願件數의 增加에 따른 審査期間의 長期化등에 따라 實用新案制度 자체의 폐지 또는 改善이 시급하다는 것.

즉, 美國과 같이 特許制度에 포함시켜 小發明을 保護하거나 西獨과 같이 特許制度와는 별도로 簡略審査를 導入해서 保護하는 등의 方法을 檢討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日本의 實用新案制度 폐지 檢討 배경을 알아본다.

日本에 實用新案制度가 導入된 것은 明治 38年으로 8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日本은 歐美에 비해 技術수준이 낮아 小發明을 保護하기 위해 實用新案制度를 導入했고, 그것이 적중하여 發明大國으로 부상할 수 있었으며, 實用新案制度는 日本의 工業所有權制度를 象徵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發明大國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최근에도 年間 20만건 정도가 出願되어 4만건 정도가 登錄되고 있다.

그러나 尖端技術인 特許出願만도 최근 10年間 2.2~5倍 정도로 계속 增加추세를 보이고 있고, 實用新案을 합한 出願은 세계에서 例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건수가 많아 審査期間의 長期化로 國際的 비판의 소리까지 높아져 實用新案制度의 폐지 또는 改善을 檢討하기에 이르렀다.

美國通商대표부

韓國特許制度 運營실태 調查할 特別調查班 설치

USTR의 아이터 대표는 지난 6월 13일 「브리스틀 메이어」社가 제소한 對韓301조 불공정무역관행건에 대해서는 調查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한국 정부의 特許政策 및 特許制度 운영실태를 調查할 부처간 特別調查班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調查班長은 USTR의 「페터 알게이어」 아시아·태평양담당 대표부와 美特許廳의 對外問題담당 「미켈 킷」 부청장보가 공동으로 맡게되며, 늦어도 오는 12월 1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調查할 주요 사항은 韓國 特許廳의 審査判斷, 차별적 관행 여부, 침해소송시 韓國法院의

즉, 全世界에서의 特許·實用新案 出願중 日本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년 26%였던 것이 84에는 43%로 상승했으며, 登錄도 17%에서 24%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의 경우 審査期間이 드디어 3년을 넘어 3년 4개월에 이르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實用新案制度의 改善이 이루어지면 그 實施시기는 내년부터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判斷, 特許침해에 대한 제재조치의 적합성등이 포함되어 있다.

美國은 이 調查에서 불공정행위가 있다고 判斷되면 業계의 301조 제소를 받아들이거나 USTR이 301조 調查를 자체적으로 착수하는 등 對應策을 강구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에 앞서 USTR은 지난 6월8일자 성명을 통해 美國의 당면 通商問題 및 우루과이라운드의 다자간 주의체로 등장하고 있는 서어비스·투자·知的所有權 및 技術분야를 전담할 새로운 代表補직제를 신설, 현재 산업서어비스 대표보인 「브루스 윌슨」을 신설기구의 대표보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外誌에서〉 <○>